

북미지역에서의 일본학 교육의 구성과 운영*

권숙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는 지역연구(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본격적 의미의 지역학이 하나의 뚜렷한 학문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적합한 지역학 교육의 방향과 모델을 모색한다는 취지 하에 북미의 지역학 교육을 고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필자의 전공지역인 일본에 대한 교육이 북미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정착해 있으며,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몇 개의 대표적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북미지역 일본학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개괄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일본학 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를 생각해본다.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학계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지역연구(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각 지역의 어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편제와 연구가 폭넓게 존재해 왔으나,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어학과 문학이 중심이 되던 기존의 좁은 의미의 지역연구를 넘어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포함해 특정 지역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본격적 의미의 지역연구가 하나의 뚜렷한 학문영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연구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학제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학부>나 <지역학과>의 신설이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연구에 대한 실용적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연구에 대한 보다 진지한 학문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일본지역학의 경우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기존의 <일어일문학과> 중심의 교육편제에서 <일본학과>가 신설되거나 (계명대, 배재대, 한림대, 한신대, 강릉대, 숭실대, 대진대, 선문대, 서경대, 한국방송대, 국민대 등), 기존의 일본어문학과가 명칭을 바꾸어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지역학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인하대와 성공회대가 최근에 <일어일본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혹은 기존의 일어일문학과에 어학과 문학 외의 일본학전공 교수를 충원하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 이 논문은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에서 행한 공동연구 "일본학 교육과정과 방법에 관한 연구"(1996. 4 - 1997. 7)의 연구결과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점도 나타난다. 예컨대 학생들의 어학능력이 기존의 어문학교육 방식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지, 일종의 학제적 영역으로서 일본지역학을 설정할 경우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기존의 분과학문(discipline)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¹⁾

이에 대한 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국내의 일본학 교육상황을 점검해보고 해외 다른 지역에서의 일본학 교육을 참고해서 한국에서 적합한 일본학 교육의 방향과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의 기본 취지도 여기에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지역연구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북미에서의 지역학 교육을 특히 일본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우선 북미 지역에서의 일본학 교육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현재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는지를 몇 개의 대표적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지역의 일본학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개괄하고, 한국에서의 일본학 교육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 본다.

II. 북미지역의 일본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북미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것은 주로 20세기 초의 일이다. 버클리 대학이 1896년, 스탠포드 대학이 1902년, 워싱턴 대학이 1909년, 하버드 대학이 1913년에 각각 일본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28년 경이면 111개의 미국대학들이 중국 혹은 일본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특히 버클리, 컬럼비아, 하버드, 스탠포드, 워싱턴 대학은 각각 일본에 대해 11개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상 이 강좌들은 아직 여전히 중국중심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박용구, 1996: 206).

일본학 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이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차대전 직후 예일(1945), 워싱턴(1946), 미시간(1947), 하버드(1947), 콜럼비아(1948), 버클리(1949) 대학 등에 동아시아와 관련한 일본연구센터가 출현하였고 더불어 일본관련 강좌수도 급증한다. 이차대전 이후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더해감과 동시에, 주로 이차대전과 전후 일본점령기를 통해 일본 경험을 축적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연구자가 증가한 것이 이 시기에 미국에서 일본연구가 확대된 주요 배경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이후 일본학 교육과 연구는 다시 한번 급성장한다.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계속적으로 펴낸 일련의 자료들은 특히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의 십여년 동안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의 폭과 범위가 극적으로 성장했음을

1) 이 점은 <일본학교육협의회>(가칭)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내 각 대학의 일본학과 소속교수들이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쟁점들이다.

2) 이런 관심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일본학 교육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일본학 교육과정과 방법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있다. 동 기관의 1995년도 <Directory> (Japan Foundation, 1995)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미국의 244기관들이 개설하고 있는 일본관련 강좌 수는 총 4,506개이며, 이 중 100개 이상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두 곳이 될 정도로 일본학 교육은 양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해왔다. 이들 강좌를 내용상으로 개괄해보면 80%가 일본에만 국한된 강좌이고 나머지 20%만이 아시아 일반 혹은 비교강좌로서 초기에 비해 전문화가 진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일본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분과학문(discipline)은 총 42 분야이며, 규모로 봐선 일본어 강좌가 가장 커서 전체 3분의 1에 해당된다. 특히 저학년용 강좌에선 어학강좌 비중이 거의 60%에 달하고, 비어학 강좌는 주로 고학년이나 대학원 강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비어학 강좌 중에선 역사 강좌(591)와 문학 강좌(430)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통적으로 지역학 교육에 있어서 어학, 문학, 역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특별히 일본학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대학에서도 일본관련 강좌를 다수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위상 변화, 이와 연결된 효과로서 일본관련 전문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실, 그리고 일본 쪽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 특히 북미지역에서 일본학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는 좋은 대학들에 막대한 지원금이 공급되었던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일본학 교육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어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전문가의 수가 극히 적었다.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대학에 일본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것은 로널드 도어(Ronald Dore)가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한 1950년대 중반의 일이다 (Japan Foundation, 1996b: 23). 그후 일본학 교육과 연구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급성장을 하였다. 현재는 일본전문가가 있는 대학이 최소 50여 곳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묶어서 하나의 북미지역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양국의 일본학 교육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규모의 차이를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일본학은 그 국가적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학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캐나다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전문가들은 대개가 미국에 근거를 둔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³⁾ 미국 쪽에서 출간된 자료를 주요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일본전문가 반수 이상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Japan Foundation, 1996b), 필자가 현지조사⁴⁾를 한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각 학과에 소속된 일본전문가 중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3) 캐나다 단독의 일본관련 학회인 <캐나다 일본학회(Japanese Studies Association of Canada)>가 결성된 것은 1987년이 되어서이다. 이 학회는 창립 이후 매년 연례 학회를 열고 있는데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줄곧 학회 개최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다.

4)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1997년 8월초 미국의 버클리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의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행해졌다.

한사람도 없었다. 혹은 기본적인 인력의 규모에 대한 평가에서도 캐나다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988년의 한 보고서를 보면(Brownlee, 1988: 26; Bernier, 1996: 3에서 재인용) 캐나다의 경우 일본전문가 수가 적어서 어느 한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최소인력(critical mass)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6년의 보고서(Bernier, 1996: 10)에 오면 “캐나다의 일본연구는 이제야 마침내 기본적인 최소인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같은 북미권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격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를 몇 개 제시하자면 일본관련 강좌수는 토론토 대학이 66개, 맥길 대학이 51개,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이 42개, 빅토리아 대학이 40개, 알버타 대학이 39개 정도로 나타난다. 각 대학에 소속된 일본전문가 수는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과 알버타 대학이 20명, 토론토 대학과 빅토리아 대학이 각각 15명씩이다 (Japan Foundation, 1995).

어찌되었건 북미지역의 일본학은 양적 성장⁵⁾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도 변화해왔는데, 점차 사회과학 쪽이 강조되면서 문학이나 역사는 절대수는 많지만 증가비율 면에선 다른 학문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학은 지난 십여년 사이에 일본학에서 매우 커다란 성장을 보인 분야이며, 현지 관계자들의 면담 결과 현재 학과나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대학들은 사회과학 쪽을 좀 더 강화하고, 여성학,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등 학생들의 새로운 수요가 느껴지는 분야의 강좌를 늘이거나 개설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다.

지난 수십년 사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온 또 다른 측면은 전문영역 (예컨대 공학이나 경영학, 법학 등)에서 일본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왔다는 점이다. 하와이 대학의 일본전문가 패트리샤 스타인호프(Patricia Steinhoff)는 “25년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본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학자였고 그것도 대개가 역사나 언어, 문학 분야의 전문가였었다”(Steinhoff, 1995: 7)라는 말로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사회과학자도 몇 명 있었고, 소수의 변호사나 한두명의 의사도 일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경영관련자 중에 일본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공대나 자연과학 분야에 일본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보다 많은 분과학문, 그리고 경영이나 공학 쪽의 전문분야에서 일본 전문가를 배출하게 되고, 굳이 학자가 될 생각이 없는 대학생들도 일본관련 과목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학생들의 진로와도 관련되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이면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비즈니스, 법, 국제관계, 번역, 통역 등의 분야에 취직을 하고

5) 특히 미국 쪽 현지 관계자들의 반응은 일본학의 양적인 성장은 이제 그 정점에는 도달한 것 같더라던가, 최근에는 중국학 등에 비해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대답을 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최소한 그동안 일본학 프로그램을 잘 갖추웠고 대규모의 일본학 강좌를 개설해 온, 그리하여 북미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본학 교육을 주도해 온 대학들에는 어느정도 적절한 평가인 듯 싶다. 그러나 저변에서의 양적 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거의 대다수가 학계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필자가 면담을 행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일본전문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예컨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1960년대 초부터 30여 년 이상 일본관련 과목을 가르쳤던 하루미 베푸(Harumi Befu)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해 온 사카모토 히로시(Sakamoto Hiroshi) 모두 사회과학 및 그 이후의 경영학, 공학 전공 학생들의 일본(어)학습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았다. 특히 경영대생이나 공대생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관련 과목을 듣는 것은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었다.

일본학 교육이 전통적으로 지역학 핵심과목인 어학, 문학, 역사에서 사회과학 및 전문분야로 확대되어온 배경의 하나는 북미지역 교육이 특히 강조하는 실용적 교육, 즉 일본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취직을 하거나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했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학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학(area studies)보다 기존의 분과학문(discipline)이 중요했던 북미 지역에서 일본학 연구와 교육이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로 침투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일본연구와 교육이 전문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III. 북미지역 주요 대학의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

1.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교육기관

미국에서 일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굉장히 많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1995년 <Directory>는 대학에 의한 일본학 교육과 일본전문가가 있는 비교육기관⁶⁾까지 포함해서 전체 244개 기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 지역에서의 일본관련 교육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일본학 교육은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교육대상의 성격에 따라 자연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 상 대학기관에 의한 일본학 교육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몇 대학을 선정해서 이곳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위의 <Directory>는 미국내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일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완전한 학부 프로그램”과 “완전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일본전공 박사과정생 수를 기준으로 1989년과 1995년 두 해에 대한

6) 예컨대 미국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을 포함한 각 지역의 자연사박물관들, 미술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공공 도서관, 뉴욕의 아시아협회(The Asia Society)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관련 협회들, 재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1989년과 1995년에 상위 10위 안에 속한 대학을 뽑아보면 다음의 12개 대학이 된다: 하와이 대학, 콜럼비아 대학, 코넬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 미시건 대학, 하버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UCLA), 시카고 대학, 프린스턴 대학, 워싱턴 대학. 1989년과 1995년을 비교해 볼 때 1989년에 포함되었던 프린스턴 대학과 워싱턴 대학 두 곳이 1995년에는 10위 권에서 밀려나고 대신 UCLA와 시카고 대학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대학은 변동이 없다. 물론 다른 지표를 근거로 할 경우 대학간 순위가 뒤바뀌며 박사과정 학생 수라는 양적 지표와 교육의 질 사이에 갭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들 12개 대학 사이의 순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이 대학들을 미국 내에서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하고 규모가 큰 대학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과 토론토 대학을 캐나다의 대표적인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첨가 한다. 일본학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 예컨대 일본전문가의 수나 기본적인 연구시설 면에서 이 두 대학이 단연 캐나다에서 수위(top two)를 차지하며 (Japan Foundation, 1996b), 위에 열거한 미국의 대학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일 것이다. 이들 14개 대학들의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은 북미지역에서 아직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당정도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미지역의 일본학 교육에 관한 좋은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일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조직

위의 14개 대학에서 행하고 있는 일본학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일어일문학과·일본학과 방식에 의한 교육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 교육에 직접 관련된 <학과>(department)에 의한 교육을 말한다. 구체적인 학과명은 <Dept. of (East) Asian Languages>, <Dep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Dep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Civilization>, <Dept. of (East) Asian Studies>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학과들은 커리큘럼 운영상 다시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일본어, 일본문학 관련 교수진만을 갖추고 어학과 문학 교육만 제공하는 경우로, 한국의 일어일문학과와 같은 시스템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어학, 문학에 역사 전공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흥미로운 점은 역사는 많은 대학에서 근대 이전을 전공하는 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근대 이후의 일본역사 전문가는 역사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학과 문학으로만 구성된 학과제도를 취하는 곳은 하와이, 버클리, 스탠포드

포드, 예일, 워싱턴 대학 등이며, 어학과 문학에 역사가 첨가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시카고, 컬럼비아, 하버드, UCLA, 프린스턴, 브리티쉬 컬럼비아, 토론토 대학 등이다. 미시건 대학은 어학과 문학에 불교학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⁷⁾.

<일본(어문)학과>에 의한 일본학 교육은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대로 일본학 교육에 있어 어학 강좌는 단일 강좌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여기에 문학과 역사 관련 강좌를 더하면 일본학 관련 강좌의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된다. 사회과학 분야의 강좌가 추가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중의 일이다. 어쨌든 이들 학과는 일본어, 문학, 역사 분야의 자체의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분과에서의 일본학 교육에 기초가 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 일본학 관련 연구소·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일어일문학과>나 <일본학과>와는 별개로 일본학 교육을 운영하는 두번째 형태로는 관련 연구소나 관련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시건 대학과 하와이 대학의 <Center for Japanese Studies>, 버클리 대학의 <Group in Asian Studies>, 시카고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예일 대학의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워싱턴 대학의 <Japanese Studies Program> 등으로, 이들은 일본학 학위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운영하는(coordination & administration) 책임을 진다⁸⁾.

이 유형의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두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 바, 하나는 협동과정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연구소나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강좌가 거의 없거나 가장 기본적인 한두개 과목 정도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학과 소속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관련 과목을 프로그램의 학점 취득 과목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상근 직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직원(program coordinator나 administrator)이 한명 정도 있을 뿐이고, 기존의 학과에 소속된 일본 전공 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나 프로그램 책임자가 임명된다. 대개 전공학생들은 분과학문별(disciplinary), 혹은 주제별(thematic) 핵심(focus)을 중심으로 학점을 취득해야만 하지만 선택의 폭이 매우 커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제한된’(limited)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대학이 학사나 박사학위 보다는 주로 석사학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7) 상기한 14개 대학의 일본관련 학과 및 프로그램의 명칭, 운영하는 학위 프로그램에 관해선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의 연구보고서(Japan Center, 1997)에 소개되어 있다.

8) 주석 7번을 참조할 것.

미국 대학 교육의 '실용성'과 관련된 특징이다. 즉 지역학 전공자의 취업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학부 교육의 경우 지역학 학사(B.A. in Area Studies)만으로는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명분이 적어진다. 예컨대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동아시아연구소(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소장인 피터 두우스(Peter Duus) 교수에 의하면 매 3-4년마다 학부과정 교육이 재조정되는데 최근 대학본부 쪽은 지역학 학부 프로그램을 없애려했고, 반면 관련 교수진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동아시아학 학사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주 작다고 한다. 한편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학 박사(Ph.D in Area Studies)는 학계에서 취직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일부 일본학 프로그램조차도 지역학 박사학위로는 취직이 지극히 불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능하면 기존 학과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학위취득 후 학생들의 진로는 일부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해 일본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일부는 취업을 하는데 취업은 꽤 잘되는 편이라고 한다. 주로 일본관련 비즈니스계나 법조계,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에 취직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의 경우 지리적인 입지 때문인지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쪽으로는 취직도 두드러진다고 한다. 물론 일본학 석사만 가지고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전문대학(professional school)과 연계하여 복수학위 프로그램(joint degree program)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있다. 예컨대 하와이 대학의 <Japan-Focused Executive MBA Program> (JEMBA)의 경우 경영대와의 협동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교육 커리큘럼은 전통적인 MBA 핵심 강좌; 일본에 포커스를 맞춘 MBA 강좌; 비즈니스를 위한 집중적인 일본어 강좌; 3개월간의 일본기업에서의 인턴쉽의 네가지로 구성된다.

이처럼 일본학 관련 협동과정 방식의 교육은 북미대학에 있어 잘 정착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반면 관계자들은 협동과정 운영의 단점 내지는 어려움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은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커리큘럼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예컨대 버클리 대학의 경우 1996년 가을학기에 일본전공의 정치학과 교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제도하에서는 개별학과가 교수진을 충원하는데 지역적 전문성보다는 이론적 전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실사 지속적으로 일본지역 전문가가 충원되더라도 개설되는 강좌가 기본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이므로 관련교수의 변동에 의해 커리큘럼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나 전공영역이 이미 상당정도 정해져 있는 어문학쪽 보다는 사회과학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점은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1995년도 <Directory>에서도 미국대학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인된다. 일본연구자인 응답자가 은퇴할 경우 그 자리가 일본 연구자에 의해 충원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1.5%만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어문학 관련자의 경우는 73%가, 반면 사회과학의 경우는 28.2%만이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즉 어문학 분야는 일본어와 일본문학에 대한 수요에 의해 특정학자가 특정학과에 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과학의 경우는 지역적 전공보다는 특정 분과학문의 전공으로 교수직이 충원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역사분야는 53.2%가 일본전문가로 충원될 것이란 대답을 하였다 (Japan Foundation, 1996a: 242). 캐나다의 경우도 대학소속 일본연구자의 45%가 자신들이 현직을 떠날 경우 그 자리가 일본 전문가로 충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특히 사회과학이나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Japan Foundation, 1996b: 40).

(3) 기존 분과학문 속에서의 교육

북미지역에서 일본학 교육이 운영되는 세번째 유형으로, 특히 일본학 관련 Ph.D 프로그램은 거의 전적으로 분과학문별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일본학 관련 박사를 배출하는 것은 소수의 대학들, 즉 위에 열거한 대학들의 박사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학 관련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이처럼 전적으로 기존 분과학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미국 교육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미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컨대 유럽 등지에서와 비교해) 개별 분과학문에 기초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 왔고 이에 비해 지역학은 예나 지금이나 ‘공격받는 분야’⁹⁾인 관개로 학계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선 분과학문의 학위(disciplinary degree)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관련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1995년도 <Directory>는 미국에서 일본지역전공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분과학문별 대학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학(14), 언어학(9), 문학(8), 정치학(8), 인류학(7), 경제학(6), 일본어와 일본문학, 일본어, 예술사, 사회학, 경영학(4), 철학(3), 일본어 교육, 행위예술, 법학(2), 농학, 언론학, 건축학, 도시학(1).

분과학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본학 교육의 특징은 교육이 “누가” 교수로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즉, 각 학과에 소속된 구체적인 교수(faculty)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설한 강좌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이점은 각 학과가 개설하는 강좌가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바꾸는데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어려움이 따르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나아가 동일한 교수라 하더라도 대개가 핵심적인 한 두개의 과목만을 제외하고는 (흔히는 그 당시의 연구 관심사에 맞추어) 자주 개설과목을 바꾸는 편이다. 예컨대 미시건 대학 인류학과와 경우 일본전문가로 제니퍼 로버트슨(Jennifer Robertson)이 있는데 그

9) 지역학에 대한 공격의 대표적인 근거는 소위 ‘지역학은 이론도 없고 방법론도 없다’라는 것이었다.

녀가 개설하고 있는 일본관련 강좌 4개 중 총론이 하나이고 나머지 세과목은 성(gender) 관련 강좌이다. 스탠포드 대학 인류학과도 최근 하루미 베푸(Harumi Befu) 교수가 은퇴하고 미야코 이노우에(Miyako Inoue)가 충원되면서 <일본의 사회와 문화>외의 일본관련 강좌는 전부 대체되었다. 상황은 캐나다도 비슷하다. 캐나다의 경우 일본어와 일본문학에 덧붙여 예술, 사상, 종교, 역사 등에 관련된 교수와 교과과정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듯한데, 현지에서는 사회과학쪽의 확대를 교과과정 개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

(4) 일본어 교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들

앞서 살펴본대로 일본어 교육은 일본관련 교육내용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저학년을 위한 강좌일 경우 전체 60%가 일본어 강좌이고, 비어학 강좌는 고학년이나 대학원을 위한 강좌로 개설되어 있는 경향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어학교육보다는 전반적인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일본학 교육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므로 어학 교육에 관해서는 북미지역에서 관찰되는 몇가지 특징만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1) 대규모 강좌 - 현재 북미지역의 주요대학의 일본어 수강인원은 일년에 수백명에서 천명을 넘고 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천명 이상되는 수강희망자를 인터뷰를 해서 5백명만 선별하여 일본어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2) 공학이나 경영대, 법대 등 전문분야쪽 학생들의 수요 증가 - 현지에서 일본어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동안의 일본어 교육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로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이런 수요에 맞춘 관련 강좌를 새롭게 개발하고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비즈니스를 위한 일본어>, <비즈니스와 전문가를 위한 일본어> 등의 어학 강좌를 들 수 있다.

3) 교수(professor)보다는 강사(lecturer, instructor)에 의한 교육 - 일본어교육이 [한국에서 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전임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어일문학과의 어학 쪽 교수진은 정년이 보장된 교수나 강사가 한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정년제 어학강사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native speaker)인 것도 특징적이다. 이런 시스템은 일단은 비용상, 교육 효과상 효율적인 인력운용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의 경우 교수와는 달리 연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가르칠 수 있고, '원어민'인 관계로 어학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4) 교수방법에 관련된 논쟁 - 최근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과 관련해 논쟁을 겪고 있는 측면으로 소위 <문법/ 구조 중심의 교육>(grammar/ structure based approach)과 <의사소통/ 언어구사력 중심의 교육>(communicative/ proficiency approach) 사이의 대

립이 있다. 이는 언어학내부의 외국어 교육방법에 대한 논쟁과 연결된 것임과 동시에 미주 지역에서 일본어에 대한 수요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논쟁이다. 즉 초기에는 일본어 교육이 주로 일본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반면 70년대 후반 이후는 실용적인 목적의 수요, 즉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많은 대학에서 이 논쟁은 현재 진행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초기의 문법-독해능력 위주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교육으로 중심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육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인 듯하다.

3.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예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첫번째 유형(<일본어문학과> 등에 의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일어일본학과와 큰 차이가 없고, 세번째 경우는 개별 분과학문의 전반적인 학위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두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유형은 커리큘럼 내용상 한국에서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일본학과>나 국제(학) 대학원의 <일본지역연구> 프로그램에 가장 흡사한 경우이므로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의 <일본학과>나 국제대학원의 대부분이 자체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북미의 첫번째 방식('학과'방식)에 외형적으로는 닮아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북미의 <일본어문학과>가 어학과 문학, 경우에 따라 역사를 첨가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일본학과>나 국제대학원의 <일본지역연구>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본적인 어학 교육에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포괄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의 두번째 방식(일본학 관련 연구소·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에 유사하다.

이 글에서는 버클리 대학의 <Group in Asian Studie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고찰한 대로 북미대학에서 이런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본학 교육은 몇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각 대학의 관련 프로그램은 그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지라도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육방식으로서의 특징들(예컨대 협동과정 운영, 한 두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커리큘럼, 복수학위 가능성, '제한된' 학위 프로그램 운영 등등)을 공유하며, 그런 점에서 버클리 대학의 경우도 이런 일반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Group in Asian Studies>에는 현재 50명 이상의 교수진과 15개 학과가 아시아 지역 관련 교육과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 <Asiatic Studies>란 이름으로 아시아 지역에 관한 협동과정 대학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49년이며, 195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학부과정은 1975년에 시작되었다.

10) 예컨대 또다른 사례로 스탠포드 대학의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가 운영하는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1997)에 제시되어 있다.

(1) 아시아학 학사 프로그램 (B.A. in Asian Studies Program)

유연성이 큰 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 하나의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론, 협동과정 교육을 통한 해당국가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공부하도록 한다. 아시아학 학사학위만으로는 취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통해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려 한다고 한다.

일본을 전공지역으로 선택할 경우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최소 36학점을 적어도 두개의 학과에 걸쳐 학부 고학년용의 강좌를 통해 이수한다; 2) 최소 2년간의 일본어 공부; 3) 전공핵심(Disciplinary Focus). 상기의 고학년 강좌를 통한 36학점 중에서 적어도 12학점은 인류학과, 역사학과, 혹은 정치학과 중의 한 학과의 일본관련 강좌를 통한 학점(어학과 제외)이어야 하며, 최소 한 강좌이상의 그 분야의 이론이나 방법론 강좌를 포함해야 한다; 4) 해당지역의 역사에 관한 고학년용의 강좌를 최소 한 강좌 이상 수강해야 한다; 5) 1)의 36학점 중 '전공핵심'용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전공핵심을 위해 지정된 과목이나 기타 <Group in Asian Studies>가 개설하거나 지정하는 일본 관련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 전공 이수학점 중에서 16학점까지는 <동양어학과>에서 제공하는 고급어학 강좌나 기타 지정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¹¹⁾.

(2) 아시아학 석사 프로그램 (M.A. Program in Asian Studies)

기본적으로 두가지 상이한 커리큘럼이 있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1) 석사논문을 쓸 경우(Thesis Plan)

- ① 3년 이상의 어학 교육, 혹은 이에 해당하는 어학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② 해당 지역에 관한 강좌를 6개 이상(20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데 이중 3개는 대학원 과목이어야 하며, 14학점 이상이 동일학과로부터의 학점이어서는 않된다.
- ③ 세명의 논문심사위원의 지도를 받은 석사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시험을 칠 경우(Comprehensive Exams Plan)

- ① 최소 3년 이상의 어학 공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② 해당 지역에 관한 강좌를 8개 이상(24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데 이중 4개 이상이 대학원 과목이어야 한다. 16학점 이상이 동일 학과로부터 받은 학점이어서는 않된다. 코스워크 기간 중에 두개의 세미나 논문을 써야 한다.
- ③ 세명의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시험을 쳐야 한다. 구두 혹은 논술 시험이 가능하다.

11) 이 프로그램에서 학점 취득 과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강좌 이름들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1997)에 제시되어 있다.

학기당 대학원생의 평균 취득학점은 12학점이므로 대개 2-4학기의 시간이 걸린다. 학생들은 보통 입학전에 어학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다.

(3) 전문 복수학위 프로그램 (Professional Joint Degree Program)

대학원의 아시아학 전공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려는 의도로 언론학 대학원, 경영대학원, 법학대학과 연계하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원한다면 기타 다른 대학과의 연계하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법학 박사/아시아학 석사 복수학위 프로그램(J.D./M.A. Degree Program in Law and Asian Studies) 해당 지역국가와 관련된 법적업무, 비즈니스, 정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법적인 자문과 정책분석, 해당국가의 법, 정부,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등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최소 10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J.D. Program>에서 73학점, <Asian Studies Program>에서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12학점은 어느 학과서든 가능하다. 첫해에 법학 프로그램의 핵심 강좌로 구성된 31학점을 이수하며, 법학, 아시아학, 다른 관련 강좌로 구성되는 74학점은 나머지 3년 동안에 이수하게 된다. 3년째와 4년째에 걸쳐 아시아학과 법학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한다. 즉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위에 언급한 아시아학 석사 프로그램의 <Thesis Plan>에 따라 의무 조항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는 해당지역에 관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해당 언어에 대한 적어도 1년간의 어학교육이 요구되는데 2년 이상의 어학 공부를 한 사람이 선호된다. LSAT와 GRE 양쪽 모두의 성적이 요구되며, 법과대와 <Group in Asian Studies> 양쪽 모두에 지원을 하고 양쪽 모두에서 합격해야 한다.

2) MBA/아시아학 석사 복수학위 프로그램(MBA/MA in Asian Studies Program) 해당 지역국가와 관련된 경영문제, 비즈니스, 정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정책 분석, 해당 국가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전문적 교육을 제공한다. 3년 프로그램으로 최소 이수 학점은 79학점이다. 50학점은 <MBA Program>에서, 20학점은 <Asian Studies Program>에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9학점은 선택이 가능하다. 첫해에는 MBA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3년째에 논문을 쓰게 된다. 응시자는 해당지역에 관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최소 1년간의 해당언어 교육이 요구된다. GMAT와 GRE 양쪽 모두의 성적이 필요하지만 입학 지원은 경영대학으로만 한다. 그러나 양쪽 프로그램 모두로부터 합격되어야 한다.

3) 언론학 석사/아시아학 석사 복수학위 프로그램(M.J./M.A. in Journalism and Asian Studies Program) 해당 지역국가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전문적 교육을 제공하는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언론학 분야에서 36학점을 이수하고 (이중 24학점 이상이 대학원 학점), 아시아학에서 20학점(<Thesis Plan>을

택할 경우), 혹은 24학점(<Comprehensive Exams Plan>을 택할 경우)을 이수해야 한다. 입학할 원하는 학생들은 한 곳에만 지원을 하지만 입학 심사는 양쪽 모두로부터 받는다.

<Group in Asian Studies>의 학생들은 일본의 10개 대학과의 연계제도에 의해 현지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네트워크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다른 캠퍼스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교환프로그램에 의해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Group in Asian Studies>는 공식적으로 <아시아학 박사학위>(Ph.D in Asian Studies)를 수여할 수는 있으나, 이 기관이 발행하는 안내자료에는 미국의 학계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는 취직에 불리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관계자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기존의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 현지교육·연수 프로그램

일본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거의 모두 현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를 더욱 연마시키거나 일본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현지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형태상 다음의 네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1)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자신들의 인력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미국대학과 일본대학이 상호 학생들을 교환하는 교환 프로그램; (3) 일본 대학들이 외국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 (4) 미국대학의 일본내 분교가 그것이다.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고, 네번째 유형은 여기서 검토하는 북미의 주요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첫번째 유형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대학간 연계 일본어 교육센터

(Inter-University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Studies)

1963년에 시작되었으며 미국대학들의 고급수준의 현지언어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요코하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줄여서 “요코하마 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1996년 현재까지 약 1,100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한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17개 대학(컬럼비아, 코넬, 하버드, 인디애나, 오하이오 주립, 프린스턴, 스탠포드,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클리, UCLA, 시카고, 하와이, 일리노이, 미시건, 워싱턴, 위스콘신, 예일대학)이 멤버로 있다. 이 대학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어 일년에 한번 위원회의를 열어 중요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며, 실질적인 운영은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학연구원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가 한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6월까지의 10개월짜리 집중언어훈련으로 회화, 독해, 작문 교육을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45분부터 3:00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 개인 교습과 공부의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짜여진다. 즉 이곳에서의 교육은 full-time 어학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기관의 안내자료는 이곳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최고 60명까지의 학생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일 필요는 없다.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을 받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미국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의 오디오 시설 외에 최근 쌍방향(interactive) 공부가 가능한 컴퓨터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개월간의 수업료는 미화 1만2천 달러이며,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지급되는 각종의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센터의 운영비는 수강학생들의 수업료와, 미교육부, 일본국제교류기금, <Japan-United States Friendship Commission> 등의 지원으로 충당된다고 하며, 센터의 대지나 각종 서비스는 요코하마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2) 교토 일본학센터 (Kyoto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스탠포드 대학의 <해외연구 프로그램 Overseas Studies Program>을 통해 운영되는 현지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내의 주요 대학들(브라운, 시카고, 컬럼비아, 코넬, 하버드, 미시건, 펜실바니아, 프린스턴, 스탠포드,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예일 대학)이 컨소시엄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1989년 가을 학기에 시작되었으며 교토에 있는 <Stanford Japan Center> 안에 위치해 있다. 9월부터 4월까지의 2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토 대학과의 학문교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은 센터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연계제도에 의해 교토대학은 도서관, 학생 클럽, 체육관 시설 등을 <교토센터>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교토대학의 수업도 청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커리큘럼 구성은 크게 어학과 일본사회·문화에 대한 것으로 나뉘어 진다. 일본어 교육은 이 센터에 상근하는 어학강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매해 8개 혹은 9개의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강좌가 영어로 개설된다. 이 강좌들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토센터>의 디렉터와 컨소시엄의 구성대학에서 해마다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토센터> 교수, 그리고 기타 일본과 미국의 저명한 교수들이다. 1997-98년의 경우 코넬대학 인류학과의 테오도르 베스트(Theodore Bestor)가 센터 교수인데 그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 <일본의 음식, 소비, 문화> (이상 가을학기), <관서지방의 도시> (봄학기)의 세 강좌를 가르칠 것이라고 한다. 그 밖의 강좌로는 <현대일본의 대외관계>, <일본의 정치와 정책>, <일본의 종교>, <현대일본경제>, <교토의 사회, 문화, 정치사>, <일본예술>, <노(能)> 등이 있다. 이러한 정규코스 외에 현지 여행, 초청 강연, 일본학생들과의 교류행사 등이 정기적

으로 있으며, 스포츠를 비롯해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매해 35명에서 45명의 학부생들이 입학하는데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에 걸쳐 다양하며 대다수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들이지만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하기 전에 일본어 2년차까지를 공부한 것이 요구된다. 홈스테이, 아파트, 기숙사 등의 숙박 종류가 가능하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프로그램의 재조정을 하고 있어서 1998년도부터는 한학기제, 봄가을학기제, 1년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5. 대학간 연계제도 (Inter-University Network)

기본적으로 자원의 공동이용(pooling) 제도로서 효과적인 자원활용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더불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1) 현지연수·교육을 위한 협조체제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되는 <Inter-University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Studies>와 <Kyoto Center for Japanese Studies>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외에도 <Kansai Gaidai>나 <The Associated Kyoto Program>도 대학간 연계로 운영되는 현지연수·교육 프로그램이다.

(2) 도서관 장서 확보 및 이용을 위한 협조체제

북미지역의 많은 대학들은 서로 <도서관 연계제도 inter-library loan system>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이 속한 대학에 없는 자료도 다른 대학 도서관으로부터 대출 받거나 복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 대학이 일본 관련 장서를 전반적으로 다 갖추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이 점은 특히 엔고 이후 심각해졌다) 대학 도서관 사이에 협조를 통해 특정 분야의 서적을 분담해서 갖추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서부 지역에서는 버클리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이 이런 약속하에 스탠포드는 주로 메이지 이후의 자료를, 버클리는 메이지 이전 자료를 구입해서 중복구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동부의 경우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5-6개 대학이 리그를 만들어서 특정분야의 도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한다. 특히 현사(縣史)를 비롯한 각종의 지방 차원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이 리그에 속한 대학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구입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대학의 도서관들이 비슷한 장서를 갖춘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를 갖추게 된다. 예컨대 프린스턴 대학은 고전문학이나 메이지 이전의 역사 관련 장서를, 하버드는 현대물들과 일간지를 집중 구입하고,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법학 계통의 장서가 강점이라고 한다.

(3) 교육정보 네트워크

점차 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보 자체를 선별하고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측면과 관련해서 최근의 움직임 중의 하나는 아시아 지역관련 북미 최대 학회인 <아시아학회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1996년부터 아시아 관련 교육 정보지인 <아시아교육 Education about Asia>을 일년에 두차례씩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세권이 나온 이 책자는 말 그대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특집 논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테크닉을 소개하는 글들; 서평; 영화평; 비디오평; CD-ROM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평;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 등)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일본학 교육에 관해서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일본종교에 대한 교육”, “히로시마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교육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일본학 교육관련 정보가 실려있다. 나아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공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6. 학교외부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학교외부(outreach) 프로그램이란 대학 기관들이 자신들의 학생 교육을 넘어서 학교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운영·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이 글에서 직접적인 관심으로 삼고 있는 대학교의 일본학 교육을 벗어난 것이지만, 북미지역을 포함한 서구의 고등교육이 갖는 보편적인 측면이고 또 한국의 대학 교육이 공공서비스란 면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방향전환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미지역의 경우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대학들은 예외없이 자신들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 구성원들, 예컨대 초·중등학교, 비즈니스계, 미디어, 비영리단체, 일반대중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이 학교밖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특히 초·중등학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에게 하나의 의무조항이었다. 이에 덧붙여 구미교육기관들의 공공서비스 의식이 우리의 경우에 비해 한결 앞서 있는 것도 이런 프로그램의 보편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이 일본학 교육과 관련해서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초·중등학교에서 일본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 자료 제공 및 개발; 교사들을 위한 여름방학 연수; 연구세미나; 강연회 개최; 일본영화 상연 및 미술품 전시, 혹은 기타 공연예술 프로그램; 전문가들 및 일반인들을 위한 일본어 교육; 도서관 시설 개방;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비즈니스계에 대한 자문 등이다.

IV. 북미지역 일본학 교육에서 보이는 주요 경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 북미지역 일본학 교육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과 경향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미의 일본학 교육방식은 (1)일어일문학과·일본학과와 (2)분과학문에 의한 교육, 그리고 여기에 (3)협동과정 석사과정 등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구분된다. <일본(어문)학과>의 경우에도 어문학 외에 역사관련 과목들이 추가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주로 어학과 문학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어문학을 제외하곤 거의 전적으로 분과학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일본학 프로그램은 주로 석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특히 실용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다른 전문분야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어문학 분야를 제외한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은 유연성이 매우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학과에 소속된 일본전문가 교수들은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강좌를 변경하는데 매우 자유로운 편으로, 담당 교수의 관심사항에 따라 동일 분과학문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상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유연성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예컨대 협동과정의 일본학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 각자의 관심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일본관련 강좌수가 매우 많은 것에 비해, 전공 필수로 정해진 것은 일정수준의 어학능력 정도이므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 '전공핵심'을 정해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런 특징은 커리큘럼상의 어떤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실용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비롯한 장래 진로에 대한 배려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학 학위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주로 일본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학사나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며, 이것도 전문분야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과 변화를 적극 모색하는 편이다. 예컨대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공학, 법학 등에서도 일어나자 이 수요에 맞는 어학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이론적 관심이나 학계 전반의 관심의 추이, 혹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강좌개설이 적극 시도된다. 최근엔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어프로치, 여성학, 문화연구, 대중문화 등의 보강이 두드러진다. 이런 대응이 비교적 쉬운 것은 위에서 말한 프로그램의 유연성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각종 연계, 협조체제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대학간 상호 연계체도를 통해 기존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각종정보, 교육

프로그램, 스텝, 도서관 시설 및 연구자료의 공유와 교류는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를 한다.

V. 한국에서의 일본학 교육에 대해 가능한 제언들

북미지역 일본학 교육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일본학 교육과 연구에 대해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일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관련 장서를 포함한 기본적인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질 높은 일본학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를 위한 기본 장서와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보충해나갈 수 있는 기금(endowment)을 확보해 가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일본연구와 교육의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연구가 ‘부업’이나 ‘겸업’이 아닌 ‘전업’인 인력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전문가 집단은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전문분야별로 갭이 상당해서, 전통적인 지역학 핵심 분야인 어문학, 역사 쪽은 나은 편이나 다른 사회과학은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초기단계로 소위 ‘기본적인 최소인력(critical mass)’이 확보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듯이 보인다.

둘째, 일본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어문학을 제외하고 하나의 지역학으로서 일본학 교육과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하는 연구나 전시성 사업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의 기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대로 북미지역의 경우 개별적으로 일본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들도 상호 연계와 협조에 의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 장서를 갖추는데 있어 전문분야를 분담한다든지, 어학교육이나 연수를 위한 컨소시엄 방식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넷째, 일본학 교육과 연구를 정상화시켜나갈 기금확보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일본학을 위한 기금 확보여부에 따라 일본연구와 교육이 부침을 겪어왔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학을 위한 기본 도서 구입은 물론이고 일본 전문가를 교수로 확보하는 것도 기금의 유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북미지역에서 일본학이 오늘날처럼 성장하는데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한 일본쪽의 기금 지원이 무엇보다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이런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져 온 캐나다 쪽으로의 지원도 최근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 외에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나 공공 기금으로부터도 일본학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 왔고 이것이 일본학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아

적도 상대적으로 연방정부나 주 정부 모두 일본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Bernier, 1996). 예외가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인데 이것은 태평양권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현실과 관계있는 것은 물론이다. 어쨌든 주 정부의 지원으로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은 최근 일본전공 교수들 세명 더 확보하였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교육기관들도 일본학 교육과 관련해 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쪽에서 가능한 지원뿐 아니라 국내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본학 교육과 직접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학 교육방식(예컨대 기존 분과학문 속에서의 교육, 유연한 커리큘럼 운영,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강조 등)은 아마도 북미지역의 특징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방식이 나온 배경, 상대적인 장단점을 다른 지역의 상이한 프로그램과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본학과(학부)>에 상응하는 미국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학)대학원의 <일본지역연구>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 협동과정으로 운영하는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가장 유사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일본학과>나 <일본지역연구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설되는 일본학과들이 앞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시켜 나갈 확률이 큰데, 대학원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미국식으로 기존 분과학문을 통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박용구. 1996.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출판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 Center. 1997. 『일본학교육과정과 방법에 관한 연구』. 일본국제 교류기금 제출 연구보고서.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994. 『日本研究第10集. 世界の日本研究--歴史と現状』. 角川書店.
 . 1995. 『海外日本研究機關一覽』.
 川上郁雄. 1988. 「地球時代の日本學」. 『日本學報』 3月号. 大阪大學文學部日本學研究室編.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USA). 1996. *Education about Asia*. 1(1,2).
 . 1997. *Education about Asia*. 2(1).
 Bernier, Bernard. 1996. "Japanese Studies in Canada, 1988-1995." *Japanese Studies in Canada: 1990s*. Japan Foundation.

- Brownlee, John S. 1988. "Japan Studies in Canada: Selected Aspects." In John F. Howe, ed. *Japanese Studies in Canada: 1987*. The Japan Foundation.
- Foster, Anne L. 1996. "Outreach Programs at the National Resource Centers for the Study of Asia." *Education about Asia* 1(2).
- Japan Foundation. 1977. *Japane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 _____. 1981. *Directory of Japanese Specialists in Canada*.
- _____. 1983. *Directory of Japan Specialists in Canada, Rev. Ed. (1983)*.
- _____. 1988a. *Japane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art I: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 _____. 1988b. *Japanese Studies in Canada: 1987*.
- _____. 1989. *Directory of Japan Specialists and Japanese Studies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art I and II*.
- _____. 1995. *Directory of Japan Specialists and Japanese Studies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art I, II, and III*.
- _____. 1996a. *Japane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90s*.
- _____. 1996b. *Japanese Studies in Canada: The 1990s*.
- Patricia G. Steinhoff. 1995. "Defining Japanese Studies in the 1990s: Who Know? Who Wants to Know?." *Japan Foundation Newsletter* XXII(5).

EDUCATION ABOUT JAPAN IN NORTH AMERICA - CURRICULUM AND ITS ADMINISTRATION

Sug-In Kweon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Japan education is organized and administered in higher education in North America. Fourtee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re selected for review and comparison. From thi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drawn out regarding Japan education in North America. First, Japan education is mostly carried out through three types of educational program, i.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discipline-based program, and

inter-disciplinary area studies program. Second, except for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the educational curriculum is run with great flexibility. Third, practical education is strongly emphasized. Fourth, active responses are made to the changing demands both from the students and larger society. Fifth, educ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re sought for through various networks and cooper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paper underlines the need to build firmly the basic infrastructure for Japan education and researches in Korea.